

## ‘애니멀봐’, ‘Kritter Klub’ 놀라운 성장세

### ‘애니멀봐’ 2년 만에 구독자 200만 명 돌파

〈TV 동물농장〉의 공식 SNS 채널 ‘애니멀봐’가 지난 8월 12일(월) 구독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17년 6월 7일 오픈한 이래 불과 2년여 만에 이룬 성과로, ‘애니멀봐’의 구독자 수 증가세는 매우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애니멀봐’의 하루 채널 영상 조회 수는 평균 5백만 뷰, 영상 당 평균 조회 수는 80만 뷰, 평균 댓글 수도 1천 회에 이른다. 또 커뮤니티 활동과 참여가 타 채널에 비해 현저히 높아 구독자 로열티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랜드 콘텐츠(\*콘텐츠 안에 브랜드 이미지나 메시지를 녹이는 광고)도 반려동물 산업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생활용품, 보험, 자동차, 영화, 유통업과 지자체 및 기업의 이미지 광고 등으로 귀엽고 순수한 동물들의 힘에 의해 확장되고 있다.

### ‘Kritter Klub’ 1년 만에 구독자 150만 명 돌파

2018년 5월 30일 오픈한 ‘애니멀봐’ 글로벌 유튜브 채널 ‘Kritter Klub’도 지난 8월 13일(화) 구독자 150만 명을 넘어섰다. 다양한 언어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동물 콘텐츠의 잠재력에 주목한 세계화 시도는 성공적으로 먹혀들었다. 최근에는 매일 구독자가 1만여 명, 조회 수가 3~4백만 뷰씩 기록되고 있어 머지않아 ‘애니멀봐’의 상승세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160여 개국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Kritter Klub’은 SBS 〈TV 동물농장〉과 자체 제작 동물 콘텐츠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많은 국가에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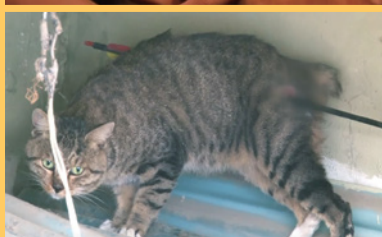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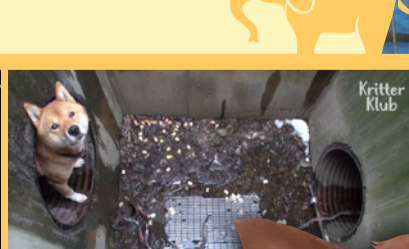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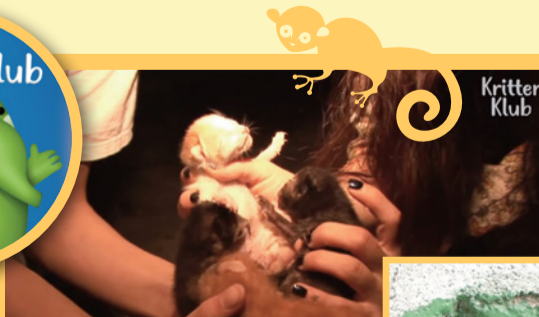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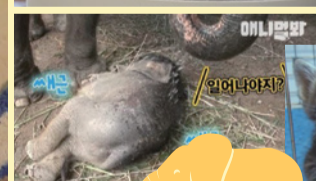
동물농장사업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이덕건 담당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애니멀봐’, ‘Kritter Klub’ 두 채널 모두 구독자 300만 명 달성도 목표로 삼아 불만하다. 당연히 도전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 〈본격연예 한밤〉 SNS 채널 ‘한밤자료실’ 오픈

한편, 〈본격연예 한밤〉은 지난 8월 5일(월) ‘한밤자료실’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 ‘한밤자료실’에는 주로 이번 주 방송의 선공개 영상, 미방송분, 더불어 과거 〈한밤〉 자료 중에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미공개 자료들을 매일 한 개씩, 일주일에 5편 올리고 있다. 오픈 첫 주에는 류준열 인터뷰, BTS 데뷔 초기 인터뷰, 영화 ‘봉오동 전투’ 인터뷰, ITZY 홍대 버스킹 등의 자료가 올라갔는데 10여 일 만에 전체 조회 수 3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팔로어 수도 8천 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하게 늘고 있어 ‘애니멀봐’, ‘우와한 비디오’, ‘Kritter Klub’, ‘그알 채널’, ‘맨인블박’에 이어 여섯 번째로 오픈한 시사교양 SNS 채널 ‘한밤자료실’ 역시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본격연예 한밤〉의 연출자이자 ‘한밤자료실’을 이끌고 있는 백시원 PD는 “앞으로 해외 시청자들도 좋아할 만한 아이돌 스타의 과거 콘텐츠, 국내 시청자들을 위한 풀버전 콘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런닝맨〉 국내 첫 팬 미팅 '런닝구' 8월 26일 개최

### 거미, 소란, 낙살, 코드쿤스트 등 최정상급 가수와 콜라보, 주제곡 공개



〈런닝맨〉이 방송 9주년을 맞아 특별한 팬 미팅을 기획했다. 〈런닝맨〉은 8월 26일(월)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방송 9주년 기념 국내 팬 미팅 '런닝구'를 개최한다. 이번 팬 미팅은 〈런닝맨〉 사상 첫 국내 팬 미팅 행사로, 올해 〈런닝맨〉의 장기 프로젝트다. 제작진과 멤버들은 지난 5월부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팬 미팅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팬 미팅에서는 국내 최정상 안무가 리아킴의 지도를 받은 멤버들이 군무를 선보인다. 멤버들의 단체 댄스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고난도의 안무에 멤버들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팬 미팅을 위해 개인 시간을 쪼개가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멤버들과 거미, 에이핑크, 소란, 낙살 & 코드쿤스트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콜라보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며, 요즘 대세 가수 정준일이 작곡한 〈런닝맨〉 주제곡도 공개된다.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만큼 멤버들은 개인 스케줄까지 반납하며 맹연습 중이다.

또, '런닝구'에 참여하는 팬들을 위해 준비한 단체 티셔츠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벤져스'를 패러디한 전소민의 윤두, 이광수의 그루트 분장은 〈런닝맨〉 레전드 분장으로 불렸던 만큼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편, '런닝구'에 함께하고 싶은 시청자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결과,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정철민 PD는 "이번 '런닝구' 프로젝트는 9년 동안 〈런닝맨〉을 사랑해주고 응원해 준 국내 팬들을 위해 마련되는 스페셜 이벤트다. 지난 2010년 첫 방송 이후 대규모 국내 팬 미팅은 사상 처음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기대해주시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서  
탐방



## 팀원들의 센스와 재치, 서로 배려하고 즐기는 팀워크가 더해져 인기 고공행진

- 시사교양본부 '애니멀봐' 팀

### 구성은?

2016년 4명으로 시작한 '애니멀봐' 팀이 이제 15명으로 늘어났다. 다들 SNS 채널에 대한 전문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팀에 합류했지만, 이젠 어디서나 탐낼 만한 SNS 채널 전문가로 성장했다. 전체 팀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팀장(이덕건 담당), 콘텐츠 제작과 채널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에디터 1명, 자막부터 채널 전체 비주얼을 담당하는 CG 3명, 로컬 채널 운영 담당 1명, 글로벌 채널 운영과 번역 담당 2명, 재구성 편집과 자체 콘텐츠를 별도 제작하는 PD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초기엔 <TV 동물농장> 예고와 하이라이트, 또 예전 방송 분야에서 방송 시기, 동물 종류, 테마 등이 겹치지 않게 다양성을 고려해 재구성 아이템을 선정했다. VCR 한 편에서 하나의 요약편을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한 편에서 2개 이상의 테마를 뽑아내거나 완성도와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있는 여러 회차의 방송분을 발췌하여 <TV 동물농장> 콘텐츠의 숨은 잠재력을 일깨우는 시도도 추가했다. 안락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만약 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과 같이 시사성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예전 방송 사례와 당시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촬영 구성해 울림이 될 만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디지털용 기획 영상물 제작에도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 스타 동물들의 일상, '견종별 집사 로드'처럼 입양과 양육으로 고민하는 반려인에게 도움을 주는 정보, 개성 강한 동물들의 스토리 중심 이벤트 등이 기획되어 구독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시도는 20년 가까운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도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물 콘텐츠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무한하게 계속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애니멀봐'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 콘텐츠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열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거기에 '애니멀봐'는 모정, 우정, 감사, 배려, 이해, 보은, 가족애 등 인간 세상에서도 희소해지는 몽클한 감정들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겨 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팀원들의 센스와 재치, 서로 배려하고 즐기는 팀워크, 꾸준한 채널 워싱 작업(\*썸네일의 제목이나 설명을 계속 바꿔주어 영상이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구독자에게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해져 각 영상마다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다음 영상을 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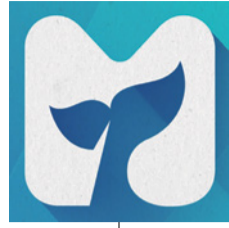
하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 앞으로 계획은?

'애니멀봐' 구독자들이 단순히 콘텐츠를 즐기는 것에서 소비 행동으로 확장되도록 비즈니스 효과를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애니멀봐'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MD 제품의 소비와 함께 소비자 만족도 상승으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리조트와 복지 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브랜드 신뢰도와 충성도를 더욱 높이는 콘텐츠의 새로운 힘과 비전을 보여주고 싶다.



5,000만 뷰 돌파!!



시즌 2 제작 돌입

## 대세 인증! 그들의 흥행에는 이유가 있다

〈세마이웨이〉(연출: 옥성아)가 누적 조회 수 5천만 뷰를 돌파했다.

〈세마이웨이〉는 연예계 대표 '썸 언니'들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제아와 래퍼 치타가 사연 제보자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SBS 모비딕의 대표 콘텐츠이다. 두 사람의 카리스마 넘치는 사이다 화법과 따뜻한 공감 코드가 시너지를 내면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세마이웨이〉는 '콘돔 안 쓰는 남친', '정치에 예민한 친구', '불법 촬영이 두려워요', '비혼주의' 등 정치, 사회, 여성 이슈 등을 두루 다루며 성장해왔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골몰'(\*예전에 올라왔던 내용을 가장 최근 페이지로 끌어올린다는 뜻)되며 70여 회 만에 누적 조회 수 5,600만 뷰를 달성했다.

그동안 개그맨 이용진, 작사가 김이나,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윤기 등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가 출연해 사연 상담에 힘을 보탤다. 하반기에는 가수, 연기자 및 예능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산다라 박과 19금 입담의 달인 안영미가 게스트로 출격을 예고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또한 115만 뷰티 유튜브 초효진과 화제의 웹드라마 〈연플리〉(연예 플레이리스트)의 김형석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힘든 출연자들의 등장도 새로운 시청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세마이웨이〉는 유튜브 '세마이웨이' 채널과 '모비딕',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 및 대부분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방영되며, 올레 TV모바일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 윤보미, 이태환, 이민지 시즌 2도 합류

SBS 모비딕과 프리콩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숏폼 드라마 〈농부사관학교〉가 시즌 2 제작을 확정했다. 국내 유일 국립 농수산대학교에 모인 각양각색 청춘 남녀들의 캠퍼스 스토리를 싱그럽게 그려내 호평받았던 〈농부사관학교〉는 시즌 2에도 에이핑크 윤보미, 대세 배우 이태환, 이민지가 출연하고, 신입생으로 이종원, 최지수가 합류한다.

이태환은 "다시 한번 감독님, 작가님, 배우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또 한 번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하겠다"며 시즌 2에 합류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윤보미는 "시즌 1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됐다. 방학이 끝나고 개강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반가운 기분"이라며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이민지는 "시즌 2에서는 새로운 유진의 모습을 보여드릴 터이니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부사관학교〉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 신입생이었던 주석(이태환), 한별(윤보미), 유진(이민지)이 어느덧 3학년이 되어 졸업 이후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내용이 그려진다. 〈농부사관학교〉 시즌 2 책임 프로듀서를 맡은 은지향 PD는 "무엇보다 제작진과 배우들의 케미가 완벽한 드라마다. 시즌 2에 프로듀서로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MSG 없는 청정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각오를 나타냈다.

〈농부사관학교〉 시즌 2는 8월 14일(수) 크랭크인했으며, 유튜브, 네이버TV 등 모비딕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광고팀 운동관 혁신리더스포럼 방송산업발전기여 부문 대상 수상



광고팀 운동관 차장대우가 공익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와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의정 & 인물 대상' 방송산업발전기여 부문 대상을 받았다. 혁신리더스포럼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8월 14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윤 차장대우는 공익캠페인을 통해 시민의식 제고에 힘쓰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와 시청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부분이 크게 평가받았다.

## 윤리경영팀 최우성 부장 안식년



윤리경영팀 최우성 부장이 9월에 안식년을 맞이한다. 최우성 부장은 1991년 12월 SBS TV 개국과 함께 입사하여 관재부에서 방송 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국 초기에 방송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후 기획부, 총무부에서 구매, 시설 및 자산 관리, 자회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 관리 부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였고, 최근까지 윤리경영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 제작 전 부문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 김상혁과 단딘의 '티격태격 케미'에 빠져들다... <오빠네 라디오>

러브FM(수도권 103.5MHz) 매일 오후 12:05~02:00

어서 와요, 만날 시간 됐잖아.

다 말해 봐요.

우리가 들어주잖아.

오빠네 라디오(김상혁 단딘!) 오빠네 라디오(렛츠고!)

시계는 12시 5분, 준비 끝난 오빠들.

김상혁(준비 끝!)

단딘(준비 끝!) (렛츠고!)

12시 5분이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오빠네 라디오> 시그널.

이시그널음악이 103.5MHz를 통해 울려 퍼진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이시그널음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빠네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김상혁, 단딘이 직접 만들고 부른 건데, 듣고 있다면 마치 사춘기 청소년의 아직은 어설플 패기가 느껴져 오글거릴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라디오 DJ로 임하는 두 사람의 애정과 열정이 느껴진다. 그렇다. 두 사람은 실제로도 정말 열심히 한다!

우리 DJ들의 매력을 뽑아보자면 이렇다.

### 티격태격 케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꽤나 사랑하는 사이로 참 친하다. 이게 어찌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솔직히 두 사람과 처음 미팅을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저러다 진짜 싸우면 어떻게 하지?"하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초반에 청취자들이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주신 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정말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있었겠지만, 친하기 때문에 또 잘 풀어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를 '갈등'이라 하지 않고, '티격태격 케미'라 부른다. 이 케미를 한번 맛본 당신은 이제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

### 말릴 수 없는 솔직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어요"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한번 휘저어놓았던 김상혁. 한때 남학생들의 패션 아이콘이었고, 그들의 로망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꽤나 긴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와야 했다. 그 시간은 그를 굉장히 멋진 인간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슬픔과 고통이 담긴 사연에 같이 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알며, 소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를 <오빠네> 가족들은 많이 의지하며 좋아한다.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저희는 고졸이에요"

게스트에게, 청취자에게,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단딘을 보며 깜짝 놀랐다. 보통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무례하거나 센스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딘이 하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대학 생활을 안 해봐서 어떤지 궁금하다며, "우와~ 엄청 똑똑한 분을 알게 돼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그의 철없어 보이는 솔직함에 <오빠네> 가족들은 어느새 같이 웃고 있다.



### 라디오바라기

라디오 DJ라는 자리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고정된 시간에 매일 성실하게 나와야지, 컨디션 관리해야지, 그러다 보면 약속도 점점 줄어들어. 하고 싶어 하지만 선택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라디오 DJ다. 김상혁, 단딘은 이 부분에서 정말 최고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라디오 스케줄을 우선으로 맞춰주는 우리 DJ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더불어 이 두 DJ의 진심과 사랑이 <오빠네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과 (가능하다면)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라본다. 가즈아!

내일도, 준비 끝!

- 연출 배태욱 PD (라디오1CP 소속)



## 남자의 큰꿈은 천연잔디구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것! - 축구동호회

- 총무 장성욱(SBS A&T 보도CG팀 부장)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축구경기에서 열심히 뛰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야유회 등의 행사에서 항상 벌어지는 경기가 축구경기입니다. 그 축구경기를 맨땅이나 위험한 인조잔디구장이 아닌 천연잔디구장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SBS 축구동호회입니다.

축구동호회는 한때 1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SBS 내 최대 동호회였으나 한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지금은 56명의 정예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구장이 천연잔디구장이다 보니 경기가 가능한 시기가 5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5월 첫째 주에는 건강하고 무사한 한해를 기원하는 시축식이 있고,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첫 주에는 한해를 마무리 짓는 SBS배 축구대회를 끝으로 홈구장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그 외 시기에는 근처 인조구장이나 풋살장을 대여하여 늦가을-초봄까지 경기를 진행합니다.

웬만한 공립구장(시립, 구립 등) 외에는 천연잔디구장을 운영하기 힘들어 전부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동호회는 천연잔디구장을 갖고 있다 보니 다른 팀으로부터 함께 경기를 하자는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 달에 2회, 1년에 12회 밖에 경기를 못하다 보니 청탁이 1년씩 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축구동호회는 사내에서는 각 사우의 체력 증진과 화합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외에서는 지금은 가족모임 행사로 내용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민방 체육대회에서 여러 번의 우승을 차지하여 회사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축구동호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우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정답을 맞히시는 분은 특별회원으로 모시겠습니다.

### 다음 중 축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 축구공이 없을 때
  2. 축구장이 없을 때
  3. 축구할 인원이 없을 때
  4. 전쟁, 지진 등 천재지변 시
- (정답은 문외처 다음에 있습니다)

정기모임: 5월부터 10월까지 매 1, 3주 일요일  
일산제작센터 내 운동장 (이외에는 특별모임)

문의: 회장 안인철(SBS A&T 영상제작2팀 #5780)  
총무 장성욱(SBS A&T 보도CG팀 #5912)

(정답: 1, 2, 3번)